

국 문 초 록

17세기 스페인 바로크를 대표하는 두 인물로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를 떠올릴 때, 바로크적 문학작품이 리얼리즘과 아이디얼리즘 사이에서 끊임없이 진동하며 근대로의 탈출을 모색하는 진자(振子)의 모습을 취함을 알 수 있다. 스페인 바로크를 특징짓는 이 두 축은 달리 말하자면 에라스무스에 의해 부활된 인본주의와 카톨릭적 이상주의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이중적 혼돈으로 특징지어지는 문학적 황금시기에 피르소 데 몰리나의 『세비야의 사기꾼과 석상의 초대』가 출판되었다. 피르소 데 몰리나의 돈 후안은 시대적 맥락 속에서 바로크적 정체성의 이중성을 내포하는 인물로서 이해되어야 마땅하다. 예컨대 돈 후안에게서 반복되는 “신은 나를 이토록 오래 참으시니! ¡Tan largo me lo fiáis!”라는 고백은 그가 신의 질서를 어지럽힐 의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으나 신의 존재마저 부정할 용기까지는 가지고 있지 못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인 것이다. 무신론자가 되지는 못했을지라도 돈 후안이라는 인물이 보여준 종교적·사회적 기대와 개인적 욕망추구 사이의 첨예한 갈등, 회개를 거부하며 욕망의 화염에 불타 죽기를 선택하는 결말은 분명 바로크를 대변하는 동시에 근대적 자아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렇듯, 피르소 데 몰리나 이후에 돈 후안이 서구 사회에서 하나의 신화적 존재로 격상된 데에는 돈 후안이 근대성의 맹아로 작용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설득력을 갖는다. 이언 와트(Ian Watt)가 파우스트, 돈키호테, 로빈슨 크루소와 돈 후안을 한데 묶어 서구 근대 개인주의의 신화라고 분석한 것이나, 라파엘 에르난데스 아리아스(J.Rafael Hernández Arias)가

유럽의 근대적 정체성을 대변해줄 신화적 인물로 파우스트, 사라투스트라와 돈 후안을 지목한 것은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다.

스페인 바로크로부터 2세기 후인 1844년, 호세 소리야(José Zorrilla)의 극작품 『돈 후안』이 상연된 뒤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된다. 도나 이네스의 사랑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돈 후안은 당시 문학계를 지배하던 낭만주의적 조류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스페인은 그들의 영웅이 부활하는 것을 보기 원했고 돈 후안은 가장 낭만적인 방법으로 부활되었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스페인의 19세기 끝자락은 결코 낭만적이지 못했다. 미서 전쟁의 패배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닥뜨린 스페인은 국가 재건의 절실한 문제를 꺼안은 채 20세기를 맞이해야 했다. 국가 재건의 문제는 스페인의 정체성 찾기와 결부된 일이었으며, 이는 곧 ‘스페인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일이기도 했다. ‘스페인은 무엇인가’란 물음은 비단 20세기에만 국한된 문제의식은 아니었으나 분명 1898년의 사건은 국가적 정체성 문제에 대한 더욱 체계적이고도 심도 있는 접근이 요구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20세기 초 98세대라 명명된 일군의 작가들이 우나무노(Unamuno)를 필두로 스페인이라는 국가에 대해 사유했고, 이들의 뒤를 이어 1900년대 세대와 27세대, 그리고 내전 이후의 작가들이 스페인이라는 국가를 포용할 수 있는 스페인성(hispanidad)을 찾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국가적 정체성의 문제는 20세기 스페인 문학을 관통하는 결정적인 하나의 물음표였다고 할 수 있으며, 한 국가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은 해당 국가의 신화임을 기억할 때, 20세기 초에 활발히 나타난 돈 후안 신화 다시 쓰기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98세대는 문학적 유산에서

스페인적 정수를 찾기 원했으며, 그들만의 프리즘을 통해 돈 후안을 통과시켜 새로운 국가적 신화를 정립하고자 했다. 한편, 20세기가 진행됨에 따라 유럽 내에서 스페인의 개방화는 불가피하게 되었고, 내셔널리즘은 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많은 이들이 국가적 정체성에 천착하는 작업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이러한 흐름은 돈 후안을 다시 쓴 작품들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는 집단적 아이덴티티의 추구에서 한 개인의 아이덴티티 추구로의 이행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 방식은 국가적 영웅으로 신화화되었던 돈 후안을 다시 탈-신화화하는 형태를 띠며 이는 분명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작업이라 평가해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세기 스페인 소설에서 다시 쓰여지는 돈 후안 신화와 그 탈-신화화 과정 내면에 나타나는 스페인 정체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추적하고자 한다.

주요어: 돈 후안 신화, 스페인 정체성, 바로하, 아소린, 하르디엘 폰셀라, 토렌테 바에스테르

학번: 2008-20040

